

- 주요 뉴스: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사상 최고치. ECB 통화긴축 지속 예상
 - 국제노동기구(ILO), 4/4분기 세계고용은 대폭 둔화될 전망
 -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경제 위험 고려하여 점진적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
 - 중국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, 전월비 하락. 향후 경제활동 감소 신호 발신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11월 FOMC 경계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8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등으로 매도 증가
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0.4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11월 FOMC에서의 0.75%p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는 모두 0.8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기조 유지 전망 등이 반영
 독일은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으로 4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26.9원, +2.6원) 0.2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0/31일	10/28일	전일대비			10/31일	10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72.0	3,901.1	-0.7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05%	4.01%	4bp
	유럽	412.20	410.76	0.35%		독일	2.14%	2.10%	4bp
	중국	2,893.5	2,915.9	-0.77%		영국	3.52%	3.48%	4bp
	일본	27,587	27,105	1.78%	CDS 5y	한국	70bp	66bp	4bp
	한국	2,293.6	2,268.4	1.11%		중국	126bp	120bp	6bp
	달러지수	111.59	110.75	0.75%	위험 지표	EMBI+	-	439	-
유로화	0.9882	0.9965	-0.83%	VIX		25.88	25.75	0.50%	
환율	엔화	148.71	147.60	-0.75%		WTI유	86.53	87.90	-1.56%
	위안화	7.3050	7.2524	-0.72%	원자재	구리	337.5	342.9	-1.57%
	원화	1,424.3	1,421.5	-0.20%		금	1,633.6	1,644.9	-0.6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유로존,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최고치. ECB 통화긴축 지속 예상

- 10월 유로존 소비자물가(CPI)의 연간 상승률은 10.7%로 전월(9.9%) 대비 올랐고,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경우도 6.4%로 전월 대비 상승(6.0%). 한편 월간 CPI 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높은 수준(1.2%→1.5%)
- 이번 결과는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큰 폭 상승 등에 기인. 특히 가스가격 등이 하락했지만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. 아울러 임금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임금인플레이션 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
-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재확인되었고, 향후 ECB의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악화 및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(Bloomberg Economics). 아울러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ECB의 정책기조 전환 역시 기대보다 늦어질 우려(UniCredit). 이를 반영하여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(2.14% +4bp)
- 한편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.2%를 나타내 2/4분기(0.8%) 대비 하락.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도 2.1%로 2/4분기(4.1%) 대비 부진. 이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경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- 이번 결과 고려 시 유로존의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. 국가별로는 독일이 예상보다 양호한 편이나,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 봉쇄조치 영향을 크게 받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부진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국제노동기구(ILO), 4/4분기 세계고용은 대폭 둔화될 전망

- 다양한 경제적,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.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, 불평등 증가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

■ 모건 스탠리, 연준의 통화긴축 종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

- 경기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수익률 역전 현상 지속 등은 연준의 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. 이를 고려 시 S&P500 지수는 향후 4,150(10/31일 3,872.0)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(Michael Wilson)

■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, ECB는 경제 위험 고려하여 점진적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

- 비스코 총재는 지금과 같이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종금리를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. 또한 통화정책 결과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, 예상보다 경제 전망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

■ 중국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, 전월비 하락. 향후 경제활동 감소 신호 발신

-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.2로 전월(50.1) 및 예상치(50.0) 하회. 10월 서비스 PMI 역시 48.7을 기록하여 전월(50.6) 및 예상치(51.9) 보다 낮은 수준. 코로나 팬데믹 관련 봉쇄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
- 이번 결과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3/4분기에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, 현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임을 시사.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중국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(ANZ의 Raymond Yeung)

■ 일본 9월 산업생산, 4개월 만에 첫 전월비 감소. 비용증가 등이 영향

- 9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1.6% 줄어 전월(2.7%) 및 예상치(-1.0%) 하회. 비용증가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부진. 민간소비는 회복 중이지만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생산부문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(Dai-ichi Life Research)

■ OPEC 사무총장, 내년 초까지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지속 예상

- 하이탐 알-가이스 사무총장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석유시장에서 공급과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, 이를 고려하여 감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3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시카고 PMI: 45.2, 9월(45.7), 예상치(47.0)
- 독일 9월 소매매출(전년동월비): -0.9%, 8월(-1.5%), 예상치(-0.4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 현지시각 기준)

-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, 미국 10월 ISM 제조업 PMI
- 미국 9월 JOLTS 구인건수 및 건설지출,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연준 의장의 중도파 입장, 물가 대응으로 도전에 직면 - The New York Times (Jerome Powell Is Popular. His War on Inflation Could Change That)

-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유연한 사고방식은 장점으로 간주되었지만,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 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. 이는 금리인상이 불황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
- 일각에서는 과거 이력을 참조하여 파월 의장이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파급이 컸던 볼커 전 의장의 정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. 이러한 경우가 실제 진행된다면 향후 금리인상 폭은 11월 0.75%p에서 12월 0.50%p로 감소를 예상
- 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, 볼커 전 의장이 맞닥뜨렸던 동일한 반발에 직면할 소지. 이에 파월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인하 이전에 물가 수준 등 경제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

■ 미국 인플레이션, 추세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 - Financial Times (There's one inflation gauge that bucks the trend)

- 최근 미국의 물가 및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.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추세 전환 예측에 사용되는 뉴욕 연준의 잠재 인플레이션 압력지수(Underlying Inflation Gauge)는 3월 정점을 기록했고 7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
- 이는 미국의 물가 추세가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의미. 해당 지수는 과거 여타 물가지수 움직임과 달리 조기에 물가의 변곡 시점을 정확히 예측. 또한 최근 금리는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기에 연준은 긴축완화 검토도 가능

■ 미국 주가 상승, 연준의 긴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 - 블룸버그 (Why Earnings Don't Scare Stocks This Halloween)

- 3/4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대부분 종료. 상당 수 빅테크 기업의 부진한 실적에도 S&P 500 지수는 최근 2주간 8.8% 상승. 이는 에너지 부문의 금년 수익이 연초 전망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영향에 기인.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도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
- 아울러 식료품, 헬스케어 등 경기방어주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을 뒷받침. 다만 주가 상승이 소비를 부추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연준의 긴축 노력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과도한 낙관적 시각은 주의가 요구

■ 중국의 부동산 시장, 일본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 - Financial Times
(Japan's empty villages are a warning for China)

- 일본의 빈주택 수가 내년 1100만채에 육박하고 '38년에는 전체 주택의 1/3을 차지할 전망. 이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잉여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도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택건설을 장려해왔기 때문
-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역시 일본식 부동산 위기(Jefferies의 Simon Powell).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, 인구 증가율이 1% 둔화될 때마다 주택 가격은 5%p 이상 하락
- 현재 중국의 인구 변화는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, 향후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투자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상황

■ 룰라의 브라질 대선 승리, 경제회복 기대와 정국혼란 우려 공존 - Financial Times
(Lula wins Brazil presidential election in historic comeback)

- 룰라(노동당) 前 대통령이 50.9%의 득표율로 보우소나루(사회자유당) 現 대통령에 1.8%p 앞서며 브라질 역사상 첫 3선에 성공. 금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現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
- 한편 야당 우위 의회를 고려할 때, 룰라 차기 대통령은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불평등 축소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
- 다른 한편에서는 룰라 차기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지출 상한선 폐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은 재정건전성 악화 및 물가상승 압력 가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. 이에 더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現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여 정국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잠재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금융안정 등도 유의하여 추진될 필요 - 블룸버그
(The Fed Should Think in Terms of a Trilemma)

■ 전세계적인 지역화 현상, 중국 경제 성장이 성패의 관건 - Financial Times
(China's economic game of dominoes)

■ 일본은행, 금융시스템 부담 증가로 내년 초 수익률 통제 정책 포기 가능성 - Financial Times
(Bank of Japan's inevitable pivot looms as a risk for market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